

# 팬데믹 시대의 의견의 불일치와 전문가 신뢰

최훈\*

## 【요약】

2020년 1월 이후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온 국민이 백신을 접종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 강도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야 하는지는 꾸준히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논란에 대해 책임 있는 의사 결정을 전문가에게 미루는 것은 합리적이라는 견해가 다수이다. 그리고 그런 견해는 정책 결정을 소수의 전문가에게 의존한다고 해서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한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소수의 정책 결정이 민주주의와 양립 가능하다고 판단을 내리는 데는 전문가 신뢰가 전제되어 있다. 비전문가는 전문가의 권위를 인정하고 전문 영역에서의 전문 지식에 신뢰를 보내기에, 그것에 바탕을 둔 의사 결정은 신뢰성이 있고 민주적 정당성을 담보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논문은 팬데믹 상황에서 전문가를 향한 인식적 신뢰가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정당화되는지를 주제로 한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왜 전문가가 신뢰를 받는가? 전문가에 대한 신뢰는 정말로 합리적인가? 그리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의 불일치가 있을 때 어느 쪽을 신뢰해야 하는가? 전문가들끼리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비전문가들은 어떤 전문가를 신뢰해야 하는가?

【주제어】 팬데믹, COVID-19, 전문가, 전문 지식, 인식적 신뢰

---

\* 강원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교수

\*\* 이 논문은 2022년 3월 26일에 열린 한국철학회 정기 학술대회(주제: 팬데믹과 인간 실존: 철학적 통찰과 학제적 대응)에서 발표되었다. 논평을 맡아 주신 심지원 교수께 감사드린다.

## I. 머리말

2019년 11월 중국에서 시작되어 2020년 1월 이후 전 세계적으로 퍼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COVID-19’로 부름)는 지금까지도 그 유행이 멈추지 않는 세계적 유행의 감염병, 곧 팬데믹이다. 팬데믹 상황에서 대부분의 나라들은 COVID-19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기 위해 상당한 수준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부 국가처럼 전반적인 봉쇄 lockdown를 시행하지는 않았지만, 사적 모임 금지나 이용 인원 제한, 식당 영업시간 제한, 비대면 수업 따위를 2022년 2월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다. 이는 시민들의 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끼칠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여 자영업자들에게는 경제적인 타격이 된다. 그런데도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은 2년 이상 일상화되어 계속 시행되고 있다.

팬데믹은 온 누리의 현상인 만큼 모든 이들의 관심사일 뿐만 아니라 학문적인 토의 주제이기도 하다. 내가 여기서 관심을 두는 것은 오랜 기간의 정책 시행에 내재되어 있는 인식적 메커니즘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의 시행에 반발이 없는 것은 아니고 그 성공 여부에도 논란이 있다. 그럼에도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이 오랫동안 진행된 데에는 위반 시 제재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전체주의 국가 수준의 강압적 정책이 시행된 것도 아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준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나는 거기에는 정부 정책을 결정하는 관료와 그 의사 결정을 뒷받침한 전문가를 향한 ‘인식적 신뢰(epistemic trust)<sup>1)</sup>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누군

---

1) Baghramian&Panizza (forthcoming), Fricker (2006), Hardwing (1985, 1991), Levy & Savulescu (2020) 등은 ‘인식적 신뢰’ 외에 ‘인식적 존중(epistemic deference)’이나 ‘인식적 의존(epistemic dependence)’이라는 말도 많이 쓰인다. 여기서는 전문가 신뢰가 인식론적 개념이라는 것을 부각하기 위해 ‘신뢰’라는 개념을 주로 사용하겠다.

가에게 인식적 신뢰를 보낸다는 것은 그 사람이 참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다는 뜻이다. 인식적 신뢰는 동료 또는 일반인끼리도 가능하고 그것만으로도 인식론적인 관심사가 된다. 그러나 여기서 관심을 갖는 인식적 신뢰는 전문가expert를 향한 것이다. 우리는 전문가의 전문 지식expertise 때문에 그들의 전문 영역을 신뢰하므로 전문가의 권위는 인식론적인 것이다.<sup>2)</sup> COVID-19 상황에서 전문가는 과학 전문가, 더 구체적으로는 역학 또는 예방 의학 또는 감염 의학 전문가를 말한다. 언론의 보도에는 항상 이 분야의 전문가가 인터뷰를 하며, 국민 앞에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는 방역 책임자로 자주 등장하는 정은경 청장은 예방 의학 전문의이며 방역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한 전문가로 국민들에게 신뢰를 준다. 시민들이 정부의 정책을 준수하는 것은 과학 전문가에게 신뢰를 보내는 것과 별개라는 지적도 가능하지만<sup>3)</sup>, 정부의 정책이 곧 과학의 정보에 기반한 정책임을 감안하면 정부의 정책을 준수하는 것과 과학 전문가에게 신뢰를 보내는 것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온 국민이 백신을 접종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 강도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이다. 민주주의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아닌 모든 인민에게 주권이 있다고 말해지므로, 공적인 의사 결정을 전문가의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추론에 의존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최근의 COVID-19상황을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기술 관료제technocracy가 시행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전문가가 아닌 인민은 전문 영역의 추론에서 훈련을 받지 않은 문외한이므로 책임 있는 의사 결정을 전문가에게 미루는 것은 합리적이다. 그리고 정책 결정을 소수의 전문가에게 의존한다고 해서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한다고 볼 수도

---

2) ‘권위’라고 할 때는 흔히 전문 지식보다는 정치적인 권위를 떠올리게 된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권위는 인식론적인 것임을 강조해야 한다. ‘정치적인 권위’는 정치인의 믿음에 대한 것은 아니므로 인식론적인 권위는 아니다. 이것은 정치적 또는 정부 정책 차원에서 의사 결정을 하거나 정책을 할 때 권한을 갖는 것을 말한다. Watson (2018), 주 7를 보라.

3) Bennett(2020), p. 246.

없다. 그러나 소수의 정책 결정이 민주주의와 양립 가능하다고 판단을 내리는 데는 전문가 신뢰가 전제되어 있다. 인민들이 전문가의 권위를 인정하고 전문 영역에서의 전문 지식에 신뢰를 보내기에, 그것에 바탕을 둔 의사 결정은 신뢰성이 있고 민주적 정당성을 담보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sup>4)</sup>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이것이다. 왜 전문가는 신뢰를 받는가? 전문가에 대한 신뢰는 정말로 합리적인가? 그리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의 불일치가 있을 때 어느 쪽을 신뢰해야 하는가? 이 질문을 팬데믹 상황에서 던져 보려고 한다. COVID-19 백신의 효용성이나 사회적 거리 두기를 두고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일반인들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끌어들이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어떤 전문가를 신뢰해야 하는가? 물론 나는 COVID-19에 대해 비전문가novice이다. 바로 이 비전문가 입장에서 위와 같은 질문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살펴보려는 것이다.

## II. 신뢰는 의심의 적인가?

비전문가가 전문가의 견해를 신뢰한다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의학에 문외한인 사람은 아프면 무당이 아닌 의사를 찾아가는 것은 상식이며, 이는 누구나 의사를 전문가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전문가 신뢰를 인식론적으로 정당화해야 할까? 전문가 신뢰가 철학적으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은 인식론의 전통 때문이다. 인식론은 전통적으로 증거에 의한 정당화에 관심을 가졌고, 그 증거는 개인의 직접적인 감각 경험에 의한 것일 때 인식적으로 정당화된다. 심지어 데카르트의 전지전능한 악마 사고 실험에서처럼 철학자들은 감각 경험에 의한 지식도 그 인식적 정당성을 의심하는 회의론 논증을 펼친다. 철학적인 논변으로서의 회의론의 맥락에서는 개인이 직접 경험한 감각 경험도 회의의 대상이 되므로, 다른 사람이 생성하고 그로부

4) 전문가의 신뢰와 민주주의의 관계에 관해서는 Anderson (2011)을 보라.

터 전달받은 지식인 전문 지식은 말할 것도 없다. 자신의 지식을 향한 인식적 정당화도 가능하지 않은 전통적인 인식론의 전통에서 ‘인식적 신뢰’라는 것은 성립할 수 없을 것 같다. 바그라미언과 파니자의 용어에 따르면 회의론의 가치와 인식적 신뢰의 필요성 사이에는 ‘태생적인 긴장’이 있어 보인다.<sup>5)</sup> 하드위그는 이것을 ‘심각한 반정립 관계’라고 부른다. 알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을 신뢰해야 하는데, 신뢰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당하게 알아야 한다는 달레마가 일어나기 때문이다.<sup>6)</sup>

전통적인 인식론에서는 직접적인 감각 경험만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인식 주체는 무엇이든 다 알 수 있으며 어떤 것도 그의 인식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이상적인 상황을 가정한다. 그러나 어떤 인간도 스스로 모든 것을 알 수는 없고 인식 대상이 모두 자신의 앞에 펼쳐져 있는 것도 아니다. 이는 전문 지식이 갈수록 심화되는 현대는 물론이고 데카르트 시대라도 마찬가지이다. 자신에게 지식을 전달해 주는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지식 중 정당화되는 것은 아주 제한적일 수 밖에 없고, 자신의 대부분의 믿음에 대해 증거를 갖지 못한다. 우리가 가진 지식의 총량을 생각해 볼 때, 감각 경험이나 그것에 기반을 둔 논리적 추론보다 신뢰가 인식론적으로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회의(의심)는 신뢰와 상반되는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데카르트의 방법적 회의에서 보듯이 철학적 회의론의 근본정신은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더 튼튼한 정당화를 위한 의심이다. 이것은 독단적인 지식을 의심하고 오히려 신뢰성 높은 지식을 찾게 하는 실용적인 역할을 한다.<sup>7)</sup> 개인의 감각 경험만으로는 완전한 증거를 얻을 수 없다. 시민들은 주변의 경험을 통해 역시 마스크를 썼더니 COVID-19에 감염되었다거나, 백신을 맞았는데도 COVID-19에 감염된 사람이 있더라는 식의 증언을 한다. 그러나

5) Baghramian&Panizza (forthcoming), p. 4.

6) Hardwig(1991), p. 693.

7) Baghramian & Panizza (forthcoming), p. 3은 이런 회의론을 ‘온건한 회의론’이라고 부른다.

마스크 착용과 백신 접종과 같은 공중 보건 위생은 통계적으로 접근해야 하므로, 이런 개인적인 체험은 인식론적으로 의미가 없고 오히려 의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마스크 착용과 백신 접종에 대해서는 개인의 증언보다는 전문가 신뢰가 훨씬 합리적이다. 회의론은 인식적 신뢰의 적<sup>8)</sup>이 아니라 동료일 수 있는 것이다.

전문가에게 호소하는 것은 인식자의 자율성을 해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가능하다.<sup>9)</sup> 데카르트나 칸트처럼 철학자들은 자율적인 판단과 의사 선택을 강조하는 전통이 있다. 자신의 판단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은 자율적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에게 의존한다는 것은 위에서 말했듯이 나의 지식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전문가가 관련 분야에서 필요한 지식을 얻기에 월등히 나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만약 자율성을 희생하지 않기 위해 내가 접근할 수 있는 경험만에 한정해서 지식을 추구한다면 그 지식은 조잡하고 초라할 것이다. 전문가에게 의존한다고 결정하는 것 자체가 인식적인 자율성의 영역이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비전문가와 전문가 중 전문가에게 의존하겠다는 결정이나 경쟁하는 전문가 중 더 신뢰성 있는 전문가를 선택하는 것만큼 자율적인 의사 선택은 없다.

이런 자율성은 ‘인식적 책임’ 개념과도 연결된다. 우리는 인식자(아는 사람)로서 신뢰성 있는 정보를 얻을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합리적으로 피할 수 없는 무지에 의해 저지른 일은 책임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 내가 친구와 소주를 마시고 있는데, 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누군가가 소주병에 메탄올을 넣었고, 돌아온 내가 따라 준 술을 마신 친구가 죽었다고 하자. 내가 없는 사이에 누군가가 소주병에 메탄올을 넣는다는 사실을 나는 알 수 없으므로 나의 무지는 합리적으로 피할 수 없고, 그렇기에 나는 도덕적 책임을 지지

8) “의심은 신뢰의 적이다.”는 Cassam (2021)이 쓴 표현이다. 그는 의심은 정치적 덕목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9) Baghramian & Panizza (forthcoming), pp. 7-10과 Hardwig, John (1985), p. 336, pp. 340-43을 보라.

않는다. 이와 달리 화학자인 내가 실험실에서 친구와 소주를 마시는데 내가 실수로 실험대에 놓은 메탄올을 친구 술잔에 따라 주었고 친구는 그것을 마시고 죽었다고 하자. 이때 화학자인 나의 무지는 합리적으로 피할 수 있었다. 유독 약품인 메탄올을 병을 소주와 구분하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sup>10)</sup> COVID-19 상황에서 의학 전문가는 두말할 필요 없이 화학자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비전문가인 일반 시민은 어느 쪽에 해당할까? 비전문가에게서도 COVID-19가 창궐하고 있으며 그 바이러스가 전염될 수 있으며 그 전염성은 아주 강하다는 것은 무지의 상황이 아니다. 따라서 비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전염을 막기 위한 행동을 해야 하는 인식적 책임이 따른다. 이때 전문가를 신뢰하는 것인 인식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된다. 그 책임은 스스로의 경험이나 비전문가가 아닌 전문가에 의존해야 한다는 책임이나, 의견이 충돌하는 전문가 중 더 신뢰성 있는 전문가에게 의존해야 하는 책임을 포함한다.

### Ⅲ. 전문가는 누구이며 왜 신뢰하는가?

일상 언어에서 전문가는 어떤 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가리킨다. 우리의 관심은 인식론적인 것이므로, 그 지식이 참인 전문 지식이라고 정의 내리면 전문가의 인식론적 정의가 될 것이다. 먼저 바이어는 인식적 신뢰를 A는 C와 관련해서 B를 신뢰한다고 3자적 관계로 정의한다.<sup>11)</sup> 우리 논의와 관련해서 A는 비전문가, B는 전문가이고, C는 B의 전문 영역일 것이다. 프리커는 전문가의 조건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S가 t의 시점에 H에 대해서 P에 대해 전문가인 조건은 다음과 같다.  
S는 P의 여부와 관련해서 의식적인 믿음을 형성하기 위한 판단을

10) 이 상황은 최훈 (2021), p. 76을 보라.

11) Baier, Annette (1986), p. 236.

내리고 그의 믿음은 거의 확실히 지식이 될 정도로 S는 P와 관련해서 인식적으로 충분히 훌륭한 위치에 있다. 그리고 그는 P와 관련해서 H보다 인식적으로 더 나은 위치에 있다.”<sup>12)</sup>

그러나 전문가는 전문 지식을 단순히 소유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적용하여 관련 분야에서 공신력 있고 정확한 의사 결정과 예측을 할 있는 사람이다. 이 점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정의는 뭔가 부족함이 있다. 그래서 골드먼은 이렇게 정의한다.

“영역 D에서 전문가는 상당히 많은 지식(참인 믿음)을 소유하고 있고, 이 지식을 그 영역의 새로운 질문에 적절하고 성공적으로 사용하는 기술과 방법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sup>13)</sup>

또 우리가 관심을 갖는 인식적 신뢰가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관계임을 염두에 두면 다음과 같이 지식의 전달에 초점을 맞추어 정의를 내리는 것도 의미가 있다.

“S는 다른 사람들이 영역 D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비전문가가 혼자서는 해결하거나 수행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S는 자신의 독특한 지식이나 기술을 비전문가(또는 다른 고객)에게 전해줌으로써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다.”<sup>14)</sup>

전문가가 소유하는 참인 믿음이 비전문가에게 전달됨으로써 비전문가는 그 지식을 인식적으로 정당하게 믿게 된다.

---

12) Fricker, Elizabeth (2006), p. 233.

13) Goldman (2001), p. 92.

14) Goldman (2018), p. 4., Croce, Michel (2018)는 이처럼 비전문가에게 도움을 준다는 취지의 전문가 정의를 ‘비전문가 지향적 설명’이라고 부른다. 이에 반대해서 전문가는 자신의 영역에서 인식적 진보를 가져오는 데 아비지해야 한다는 전문가 정의를 ‘연구 지향적 설명’이라고 부르는데, 그는 이것을 지지한다. 이 구분은 이 논문의 관심사가 아니므로 무시하겠다.



그러나 인식적 신뢰는 어떻게 정당화되는가? 나는 의학을 전혀 공부하지 않았지만, 이 약이 질병을 치료하는 데 쓰일 수 있다고 믿는다. 의학 전문가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내가 증거에 직접 접근할 수 없고, 그 증거를 이해할 능력이 없는데도 그 증거에 대한 참인 믿음을 형성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인식론에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본격적으로 시도한 철학자는 하드위그이다.<sup>15)</sup> 그는 A는 p라고 믿을 좋은 이유, 곧 증거를 가지고 있지만 B는 그렇지 못하다고 가정한다. 그러면 B는 p라고 믿을 이유가 전혀 없거나 충분하게 없다. 이때 다음 원리가 성립하면 B는 p라고 믿을 좋은 이유를 가지게 된다.

“만약 B는 A가 p라고 믿을 좋은 이유가 있다고 믿을 좋은 이유를 가지고 있다면, B는 p라고 믿을 좋은 이유를 가지고 있다.”<sup>16)</sup>

이런 가정하에서 B는 p라고 믿을 증거를 직접 가지고 있지 않지만, B의 믿음이 단순한 믿음 이상의 것이 된다는 것을, 곧 정당한 믿음임을 설명할 수 있다. B의 믿음은 A의 권위에 호소함으로써 인식적으로 정당화되는 것이다. 물론 이 원리에 대해 인식론에서 훈련을 받은 사람은 다음과 같이 물을 수 있다. B가 p라는 것을 애초에 알지 못한다면 A가 p를 안다는 것을 B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B 스스로가 이유를 가지고 있지 않고 A가 가진 것이 좋은 이유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B는 A가 좋은 이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드위그는 이 질문은 중요하기는 하지만, 증언 testimony에 호소하는 것이 인식론적으로 쓸모없게 된다고 말한다.<sup>17)</sup> 다른 사람의 증언에 호소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안다는 뜻이다. 그렇지 않다면 증언에 기반한 믿음을 갖는 것은 무의미하고, 그래서 비합리적

15) Hardwig (1985), p. 335-349., Hardwig (1991), p. 693-708.

16) Hardwig (1985), pp. 336-37, Hardwig (1991), pp. 697-98. Hardwig (1991)에서는 A와 B가 바뀌어서, 곧 A가 비전문가, B가 전문가로 설정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Hardwig(1985)의 방식을 따랐다. 이어지는 설명도 마찬가지이다.

17) Hardwig (1991), p. 698.

이게 된다. 따라서 A의 권위에 호소하는 것은 B가 p라고 믿는 이유를 틀림없이 강화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는 증거가 잘 작동한다면, 증거에 기반한 믿음은 전통적인 인식론자들이 생각하듯이 직접적이고 비증언적인 증거를 대체하는 차선의 것이 아니라, 더 뛰어난 것이기도 하다고 주장한다.<sup>18)</sup>

어떤 사람을 전문가인지 판정하는 몇 가지 표지가 있다.<sup>19)</sup> 첫 번째는 학위, 자격증, 전문 단체의 회원 자격 등의 자격 증명이다. 의사나 박사나 기술사 등의 타이틀이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전문가는 소정의 교육 과정과 시험을 걸쳐 자격 증명을 취득하였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의 실적이다. 해당 분야에서 쌓은 업적이나 수상, 평판 등의 기록이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위에서 비전문가가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을 애초에 알지 못한다면 전문가가 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인식론적인 질문을 던졌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의사는 무엇을 잘해야 하고 자동차 수리공은 무엇을 잘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다. 의사는 질병에 대해, 자동차 수리공은 자동차에 대해 비전문가가 질문하면 대답할 수 있어야 하고 치료 또는 수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해당 분야에 대해 귀납적인 증거가 쌓인 것이 지금까지의 실적이 되는 것이다.

세 번째, 동료들의 평가이다. 업무상의 능력, 지적인 성실성, 이해관계의 정직성 따위의 항목에서 동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을 말한다. 특히 과학자의 연구 업적이 발표되는 학술지는 동료 평가(peer review)를 핵심으로 하는데, 이것이 과학자에게 전문가로서의 객관적인 신뢰도를 담보해 준다. 동료들의 평가는 첫 번째, 두 번째 표지와 중복되기도 한다. 전문가를 평가한다는 의미에서 ‘메타 전문가’라고 부를 수 있는 또 다른 전문가나 동료 전문가로부터 평가를 받았기에 학위나 자격증을 받고, 지금까지의 실적과 평판을 쌓을

18) Hardwig (1991), p. 698.

19) Goldman (2001), p. 97, Levy & Savulescu (2020), p. 6을 참고하라. 여기서 는 전문가가 사람인 경우만 설명하고 있지만, 단체도 가능하다. 가령 자녀를 보낼 어린이집을 선택할 때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았는지, 학부모로부터 평판은 어떤지 듣는 것은 전문가를 판정하는 표지가 된다.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전문가 신뢰가 가능한 것은 이러한 표지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소정의 교육 과정이나 시험 그리고 동료 평가의 수준과 엄격성을 믿기에 그 과정을 거친 전문가를 신뢰한다.

네 번째, 전문가의 지식은 자신만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비전문가가 의존하고 존경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다. 앞서 본 골드먼의 전문가 정의에 이것이 반영되어 있다. 전문 지식은 비전문가가 자문(諮問)할 가치가 있는 성격의 것이라는 점에서 존재 의의가 있다. 이런 점에서 이른바 ‘덕후’(오타쿠)를 전문가를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덕후는 특정 분야에서 상당한 수준의 지식을 쌓은 사람은 맞지만, 그 전문 지식은 비전문가들이 자문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문가 판정 표지로 비전문가는 의사를 전문가로 판정한다.<sup>20)</sup>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소정의 교육 과정을 거쳐야 하고 공인된 시험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의사 내에서도 다시 세부 분야의 전문가가 있다. 가령 예방 의학이나 감염 내과 전문가는 해당 분야의 전공의 과정을 거쳤는가를 보고 판정할 것이다. 더 나아가 그 분야에서 전문가를 넘어 권위자의 수준인가는 전문 학술지에 논문을 실었는가나 동료 전문가들로부터 합의된 평판을 얻고 있는가 등을 거쳐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 내에서도 다시 위계가 발생한다.

한편 무당이나 전통 의학의 비방(秘方)을 쓰는 사람을 전문가로 인정할 수 없는 이유도 위 판정 표지로 설명이 가능하다. 무당의 치료 행위나 비방은 공인된 교육 과정에서 배우지도 않고 그것을 검증하는 시험이나 학술 잡지도 없다. 이 말은 그 지식들이 동료 평가를 거쳐 검증된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의학의 가설은 엄격한 실험 상황에서 검증과 반증 과정을 거치고 또 다시 동료들의 평가까지 받아 확립된 지식의 단계에 이른다. 그것은 언제든지

20) 이른바 여초女超 사이트에서는 “내가 전문적인데...” 라는 식의 게시물이 많아 도대체 어떤 직업까지 ‘전문직’이라고 해야 하는지 논쟁이 있다. 그 논쟁에 이 판정 표지가 도움이 될 것이다.

반증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 그러나 무당의 주술이나 비방은 그런 검증의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는다. 주술이나 비방이 효력이 없는 사람들은 적극적인 반증을 하지 않고 효력을 발휘한 사람들의 편향된 증언에 의해서 전파될 뿐이다.

전문가에게 호소하는 것은 일종의 사람에의 호소ad hominem가 아니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sup>21)</sup> 전문가의 증언이 참인지 거짓인지 검증해보지 않고, 단지 전문가가 말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말을 참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가에게 호소하는 것은 엄격하게 말하면 그 전문가라는 사람에게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은 전문가가 만들어놓은 진술에 의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문가에게 호소하는 것은 사람에의 호소 논증과는 다르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인공 지능의 한 방법인 전문가 시스템expert system을 생각해 보자. 이것은 전문가의 지식을 프로그래밍화해서 전문가에게 일일이 물어보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그 지식을 이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딥 러닝이 대세인 현시점에서 전문가 시스템은 한물간 방법으로 여겨지기는 하지만, 전문가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된다면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것이나 전문가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나 차이가 없게 된다. 그때는 전문가에게 묻는 것이 ‘사람’에 호소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람’인 전문가에게 호소하는 것도 동료들의 엄격한 검증을 통과한 전문 지식의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그곳으로부터 필요한 지식을 끌어내는 것이므로 사람에의 호소 논증은 아니다.

#### IV. 전문가 사이의 의견의 불일치는 어떻게 해소하는가?

지금까지 전문가는 누구이며 왜 전문가를 신뢰하는지 설명했다. 전문가를

21) 이하 내용은 최훈 (2015), pp. 122-24를 보라. 나는 거기서 사람에의 호소 논증이라고 하더라도 꼭 오류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여기서는 그보다는 전문가에게 호소하는 것이 사람에의 호소 논증인지가 초점이다.

신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전문가가 비전문가에 비해 월등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전문가들 사이의 의견이 합의되어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 전문가 개인이 아니라 전문가 집단 전체 또는 대부분의 의견이 일치되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것을 한 견해로 생각하여 신뢰하는 것이다. 전문가는 소정의 교육 과정과 시험을 걸쳐 자격 증명을 취득한 사람이라고 앞에서 설명했다. 확립된 교육 과정이 있고 지식을 테스트할 공인 시험이 있다는 것은 그 집단의 전문 지식이 합의에 이르렀다는 뜻이다. 앞서 예로 든 무당의 치료 행위나 비방은 동료 평가를 거쳐 검증된 것이 아니기에 합의된 지식도 아니거니와, 그 세계에서는 전문 지식(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합의할 만한 시스템이 없다.

문제는 전문 지식의 영역으로 생각되는데 전문가의 합의가 없거나 없다고 생각되는 경우이다. 비전문가는 전문가를 사칭하는 사람과 전문가를 구분할 능력은 있다. 앞 절에서 말한 전문가 판정 표지를 이용하면 된다. 그러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끼리 의견이 불일치할 때는 어떻게 판정하는가? 자신의 전문 분야가 아닌 영역에서 전문가가 한 발언인데도 그것을 신뢰하는 것은 ‘부적합한 권위의 호소’라고 오류로 취급한다. 하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충돌할 때이다. 의견의 불일치는 *disagreement*는 인식론에서 논의되는 주제 중 하나이다.<sup>22)</sup> 그러나 기존의 의견의 불일치 연구는 전문가가 아니라 ‘인식적 동료들’ *epistemic peers* 사이의 불일치를 대상으로 하고, 이는 ‘이상적인 불일치’를 가정한다. 다시 말해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양 당사자 모두 필요한 인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고 관련 주제에 관한 정보를 똑같이 가지고 있는데 불일치가 일어난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끼리의 의견 불일치는 그런 이상적인 상황이

---

22) 최훈 (2016)을 보라. Fogelin (1985)은 깊은 의견의 차이 *deep disagreement*인 경우에는 의견 차이의 해소가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최훈 (2016)은 Fogelin (1985)이 깊은 의견의 차이 사례로 든 것은 진정한 사례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깊은 의견의 차이는 해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아니다. 전문가들이므로 필요한 인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들이 관련 주제에서 정보를 똑같이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끼리의 의견 불일치로 자주 거론되는 사례는 지구 온난화 허구설과 백신(COVID-19 백신 이전의 주로 MMR)을 둘러싼 거부 운동이다.<sup>23)</sup> 이 중 백신 거부 운동은 전문가보다는 사이비 과학자를 중심으로 제기된 비과학적인 음모론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전문가들끼리의 의견 불일치로 보기 어렵다.<sup>24)</sup> 그러나 인간에 의한 지구 온난화를 부정하는 과학자들이 있다. 과학사학자 오레스키스와 콘웨이는 <의혹을 팝니다>에서 프레데릭 사이츠, 로버트 자스트로, 윌리엄 니렌버그, 프레드 싱어 등을 그런 과학자들로 지목한다.<sup>25)</sup> COVID-19와 마찬가지로 지구 온난화와 관련해서도 최근 날씨가 더워졌다거나 이상 기후 현상이 자주 일어난다는 개인적인 경험이 확증 증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전문가인 기후 과학자들의 의견을 신뢰해야 한다. 지구 온난화와 관련해서 음모론을 주장하는 과학자는 <의혹을 팝니다>의 부제가 말하듯이 ‘한줌handful’일 뿐이고,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지구 온난화에 동의한다. 앞서 전문가의 판정 표지로 동료 평가를 강조했다. 과학자들은 연구에서 실수를 할 수 있고 왜곡이나 부정직이 개입하기도 한다. 그러나 동료 평가가 그 오류들을 파악해서 수정하도록 해 주며 그 과정을 통해 과학자의 주장은 합당하게 증명되고 지지된다. 이 모든 과정은 학술지를 비롯한 학계 내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동료 평가의 전문성, 객관성, 공정성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혹을 팝니다>는 벤 센터라는 대기

23) 일상 언어에서는 이들을 ‘지구 온난화 회의론자’, ‘백신 회의론자’로 부르기도 한다. 철학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회의론이 오용되는 사례이다. 한편 사이비 과학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아무 수식어 없이 ‘회의론자’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회의론이 긍정적으로 사용되는 예이다.

24) 우리나라의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일명 ‘안아키’) 모임이 백신 거부 운동의 대표적 단체이다.

25) 오레스키스, 콘웨이 (2012). 이 책의 원제목은 Merchants of Doubt: How a Handful of Scientists Obscured the Truth on Issues from Tobacco Smoke to Global Warming이다.

과학자의 사례를 소개한다. 그는 온실 가스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했고, 동료 평가의 “검토 코멘트에 따라 수정을 가하거나, 아니면 이런 코멘트가 타당하지 않거나 부적절하거나 명백한 오류인 이유를 설명” 했다.<sup>26)</sup> 보고서를 의뢰한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서도, “과학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서도 마땅히 할 일이었다. 이렇게 동료 코멘트를 참조해서 원래의 보고서를 수정했을 뿐인데도, 지구 온난화를 부정하는 과학자들은 <월스트리트 저널>을 비롯한 신문과 잡지에 편지를 보내서 센터가 보고서를 조작했다고 비난했다. 그가 “정책 결정권자들과 대중을 기만하기 위해 의심스러운 변경을 했다는 것이다.”<sup>27)</sup> 지구 온난화 허구설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이렇게 학술 잡지가 아니라 대중 잡지나 방송, 그리고 언론인이나 행정가들과의 사적인 대화 등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펼친다. 그리고 자신의 주장에 대한 반대 증거가 나와도 그것을 수정하려고 하지 않는다. COVID-19와 관련된 전문가들의 의견 불일치에서도 이런 양상을 주목해야 한다.

COVID-19는 불과 2년여 전에 생긴 질병이다. 지구 온난화처럼 백신 접종이나 사회적 거리 두기를 둘러싸고 과학자들 사이에서 합의가 있을까? 나는 그것을 아직 알지 못한다. 지금 관심사는 비전문가가 전문가들의 의견이 불일치할 때 어느 쪽을 신뢰해야 하느냐이다. 따라서 나도 전적으로 비전문가 입장에서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을지 찾아보려고 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의 불일치가 있을 때, 비전문가 입장에서는 다음 세 가지 대응이 가능하다.<sup>28)</sup> 첫 번째는 자신이 직접 판단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 지식의 영역에서는 전문가에게 의존하는 것이 비전문가의 인식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COVID-19와 같은 위험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두 번째는 전문가들의 의견 차이에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다. 이것은

26) 오레스케스, 콘웨이 (2012), p. 26.

27) 오레스케스, 콘웨이 (2012), p. 25.

28) 이 대응 방법은 Levy & Savulescu (2020), p. 10 이하를 참조했다.

의견의 불일치 논의에서 회유적 견해the conciliatory view라고 알려진 것을 전문가의 의견의 불일치에 적용하는 것인데, 회유적 견해는 인식적 동료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두 논쟁자는 자신의 견해에 대한 확신을 누그러뜨려야 한다는 견해이다. 다른 쪽이 틀렸다고 말할 수 없는 이상 자신의 견해를 누그러뜨릴 수밖에 없다. 이때 자신의 확신을 어느 정도 누그러뜨리느냐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가능한데, 그중 대표적인 것은 동일 가중치론Equal Weight view이다.<sup>29)</sup> 서로 충돌하는 두 견해에 똑 같은 무게를 주는 것이다. 회유적 견해 또는 동일 가중치론이 타당하거나 유용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견해는 지금과 같은 팬데믹 상황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중간을 선택할 수 없고 오로지 예 또는 아니오만 선택해야 할 때가 있기 때문인데<sup>30)</sup>, 가령 백신 접종이 사례가 그러하다. MMR 예방 접종에서도 그렇듯이 COVID-19 예방 백신은 모든 사람에게 접종해야지 타협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물론 사회적 거리 두기의 경우에는 상충하는 견해 모두에 동일한 무게를 주고 어느 정도의 거리 두기를 할지 타협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기본적인 생필품 생산과 배급이 없어서는 안 되므로 완전한 봉쇄를 주장하는 쪽은 없다. 결국 사회적 거리 두기를 주장하는 쪽과 그것을 반대하는 쪽이 대립하는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어느 단계로 하든 시행한다는 것은 거리 두기를 주장하는 쪽의 손을 들어 주는 것이다.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다. 의견의 불일치 논의에서 회유적 견해는 의견이 충돌하는 당사자들, 곧 전문가들끼리 의견 차이를 합의한다는 것이지, 비전문가가 그 견해들 사이에서 합의를 시도한다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전자가 아니라 후자이므로 엄격히 말하면 앞 문단의 논의는 논점에서 벗어난 느낌이 있다. 그러나 팬데믹 상황에서 회유적 견해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비전문가의 선택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백신 접종에 따라야 하느냐 말아야

29) Matheson (2015), p. 65 이하를 보라.

30) Levy & Savulescu (2020), p. 11의 지적이다.



하느냐, 사회적 거리 두기를 따라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에서 합의를 시도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상충하는 양 전문가 견해 중 어느 쪽이 더 신뢰성이 있는지 확정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것이 비전문가가 선택할 수 있는 세 번째 대응이다.

상충하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사람은 일반 시민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정책 결정을 할 때 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가를 참여시키는데, 위원회 구성을 담당하는 행정 관료도 비전문가인 것은 마찬가지이다. 정부의 정책을 결정하는 관료나 거기서 결정된 정책을 따를지 고민하는 시민 모두 어떤 전문가를 신뢰해야 할지 인식적 고민의 상황에 빠진다. 특히 COVID-19는 국민 건강과 생명 그리고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막대하므로 거기에는 상당한 인식적 책임이 따른다. 골드먼이나 앤더슨 같은 철학자들은 전문가들의 불일치 사이에서 신뢰성 있는 전문가를 식별하는 기준을 제시했다.<sup>31)</sup> 골드먼은 전문가와 비전문가를 구분하는 문제를 ‘비전문가/전문가 문제’라고 부르고, 비전문가가 경쟁하는 전문가들의 상대적 신뢰도를 정당하게 판단할 수 있느냐는 문제를 ‘비전문가/2-전문가 문제’라고 부른다.<sup>32)</sup> 그런데 골드먼이나 앤더슨의 기준은 범용의 것이고 특정 케이스에 적용된 것은 아니다.<sup>33)</sup> 나는 그것들을 참고해서 COVID-19 상황에서 전문가를 식별하는 기준을 제시해 보려고 한다. COVID-19와 관련해서 상충하는 두 전문가는 백신 접종을 찬성하는 전문가와 반대하는 전문가를 상정하겠다. 물론 백신 접종을 두고서도 백신의 효용성에는 찬성하지만, 인구 집단에 따라(소아, 청소년, 청년, 노년, 위험군) 의무 접종을 해야 할지, 그리고 추가 접종을 해야 할지 의견이 다를 수 있다. 또 백신 접종을 효용성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방역

31) Goldman (2001), pp. 85-11., Anderson (2011), pp. 144-164.

32) Goldman (2001), p. 90.

33) Almassi (2012)는 Goldman (2001)의 기준을 기후 변화에 적용해 보고 있다. 그러나 기후 변화의 사례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대체로 Goldman의 기준을 재진술하고 있다.

대책과 대비하여 그 효능을 저울질할 수도 있다. 의견의 스펙트럼이 다양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여기서는 단순하게 백신 접종에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전문가와 반대하는 전문가를 염두에 두겠다.

첫째,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심화된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지 판단해야 한다. COVID-19 백신 접종의 전문 분야는 역학 또는 예방 의학 또는 감염 의학이다. 백신에 반대하거나 접종을 거부하거나 집단으로 성명을 발표하기도 의료인들이 있는데 대체로 백신과 전염병의 전문 분야 밖의 전문가들이다. 예컨대 2021년 말에 COVID-19 백신에서 살아있는 미생물이 발견되었다는 의사의 주장이 sns를 통해 퍼져 나갔다. 그러나 그 의사는 산부인과 의사였다. 그리고 2021년 2월에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을 우려하는 의료인 연합(가칭)’이라는 단체에서 “코로나19 백신 의무 접종 법안에 반대한다.” 라는 의료인 성명서가 발표했다. 여기에 이름을 올린 19명의 의료인 중 7명만 의사이고, 나머지는 치의사와 한의사이다. 의사들도 관련 전문 분야가 아니거나 세부 전공을 알 수 없다. 이런 사례들은 의사의 발언이라는 이유로 신뢰성을 높여려고 하지만, 이들은 COVID-19 백신과 관련해서 비전문가에 가깝다.

둘째, 누가 전문가인지 판단하는 또 다른 전문가, 곧 ‘메타 전문가’에게 호소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메타 전문가는 동료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신뢰를 받은 전문가를 말한다. 물론 지지자가 많다고 해서 꼭 신뢰도가 높은 전문가는 아니다. 골드먼은 광신도가 많은 구루를 그 예로 든다.<sup>34)</sup> 골드먼에 따르면 지지자의 수는 의견을 갖는 각 사람이 독립적으로 긍정적인 신뢰도를 가지고 있을 때만 추가적인 신뢰도를 갖는다. 구루는 지지자가 많다고 해도 그 지지자들은 각자가 독립적인 검증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루머가 전달되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된다. 여러 사람들을 거쳐 루머가 전달될 때 루머의 신뢰도가 높아지지 않기에, 루머를 믿는 사람의 수가 아무리 늘어나도 신뢰도는 높아지지 않는다. 우리는 황우석 사태에서 그 실제 사례를 확인했다.

34) Goldman (2001), pp. 98-99. guru는 힌두교나 시크교의 종교 지도자를 가리키기도 하고, 전문가를 뜻하기도 한다.

황우석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았지만, 그 다수는 긍정적인 신뢰도를 높여 주지 못했다. 이에 견줘 전문가들의 경우에는 능력을 갖춘 전문가가 자신의 능력으로 검증을 거치므로 그 수가 많다는 것은 신뢰도가 그만큼 높아졌다는 뜻이다. 따라서 비전문가 입장에서는 COVID-19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위에서 말한 역학 또는 예방 의학 또는 감염 의학 전문가 집단들의 전문가 합의가 어떤지를 찾아보는 중요하다. 한편 전문가가 모인 기관도 메타 전문가이다. 질병 관리청이나 세계보건기구(WHO)가 거기에 해당할 것이다. 그 기관에서 COVID-19 백신에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살펴봐야 한다.

셋째, 해당 전문가의 주장이 동료 평가를 받는 학계 내에서 이루어지는지 그 밖에서 이루어지는지 평가해야 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지구 온난화 해구설을 주장하는 쪽은 동료 평가를 받는 학술지를 통해서 자신의 이론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신문이나 대중 잡지 또는 개인적인 대화를 통해 내세운다. COVID-19 백신의 부작용이나 비효용성 주장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COVID-19 백신은 그 제작 기간과 검증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기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기후 변화 논쟁과 마찬가지로 그 오류는 동료 평가를 통해 이루어지며 끊임없이 수정되고, 이것은 과학에서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런데도 그 과정에서 지적된 오류를 지적하여 학계 밖에서 백신의 무용성을 거론하는 것은 지적으로 성실하지 못한다. 예컨대 위에서 언급한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을 우려하는 의료인 연합(가칭)’은 성명서에서 유명 학술 잡지나 세부 전문가의 발언을 언급하며 자신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 비전문가 입장에서는 (앞서 이들 역시 비전문가라고 말했다!) 유명 학술 잡지나 세부 전문가의 연구가 이들의 성명을 지지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든다. 그러나 앞서 말한 대기 과학자 벤 센터의 사례처럼 과학의 발전 과정에서 검증과 반증을 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일 뿐이다. COVID-19 백신을 둘러싼 논쟁은 학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대인들이 백신에 관한 정보를 전달받는 곳은 누리 소통망 서비스(SNS)가 가장 흔하다. 사람들은 인스턴트 메신저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수시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실”이나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 방법” 등의 글을 전달받거나 읽는다. 이때 읽는 내용은 거의가 자신이 지지하는 이데올로기에 경도된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과 정치적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과 인스턴트 메신저를 주고받고 그런 인터넷 커뮤니티에 가입한다. 인터넷의 발달로 갈수록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만나는 일이 많아져 다양한 의견을 접할 기회가 줄어든다. 자신에게 유리한, 그러나 검증되지 않은 뉴스만 전달받고 읽는 것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런 편향된 서비스나 누리집에서 벗어나서 객관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도 비전문가에게는 전문적인 학술 잡지를 직접 검색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 그런 상황에서 인간에 의한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앤더슨이 제안한 방법이 비전문가/2-전문가 문제의 넷째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는 기후 변화에 대해 누구를 믿고 그래서 무엇을 믿을지 이차적으로 판단할 때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에 주목하라고 말한다.<sup>35)</sup> 그가 인터넷이라고 할 때 앞에서 이데올로기적으로 경도되었다고 말하는 특정 사이트를 언급한 것이 아니다. 검색 사이트나 포털 사이트처럼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접근하는 사이트를 말한다. 특정 사이트는 한 가지 관점만 대변하고 그 반론을 분명히 소개하지 않지만, 검색 사이트나 포털 사이트에서는 경쟁하는 견해들이 어떻게 반론을 주고받는지 파악할 수 있다. 앤더슨은 더 구체적으로 구글에서 검색해 보아 앞에 뜬 몇 개의 항목을 보면 된다고 말한다. 그리고 위키피디아의 ‘지구 온난화’ 항목을 보라고 말한다. 그러면 지구 온난화를 지지하는 전문가의 합의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제안을 COVID-19 백신에도 적용해 볼 수 있다. 위키피디아는 COVID-19 백신을 먼저 소개한 다음 하위 항목으로 ‘잘못된 정보와 주저’(misinformation and hesitancy)를 거론한다. 이 사실이 주는 함의는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방금 넷째 기준을 언급하면서 특정 이데올로기에 경도되지 않은 사이트에

---

35) Anderson (2011), p. 150.

서는 경쟁하는 견해들끼리 어떻게 반론을 주고받는지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것이 비전문가/2-전문가 문제의 다섯째 기준이다. 전문가들은 전문 영역에서 논쟁을 주고받는다. 물론 비전문가는 그 논쟁을 따라갈 수도 없고 평가할 수도 없다. 과학 전문 기자나 과학 대중 저서의 저술가가 쓴 글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골드먼은 전문가의 논증이라고 해서 모두 비전문가가 접근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그는 ‘은밀한(esoteric) 진술과 ‘공개된(exoteric) 진술’을 구분한다.<sup>36)</sup> 은밀한 진술은 전문 지식의 영역에 속하는 지식을 말하는데, 비전문가는 개인의 지식으로는 그 참·거짓에 접근할 수 없다. 반면에 공개된 진술은 전문 지식의 영역 밖에 있는 지식으로 비전문가가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 비전문가 입장에서 공개된 진술은 충돌하는 두 전문가 중 한쪽 진영이 전문 지식에서 대화적 우위성을 지니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앤더슨도 비슷한 기준을 제시하는데 누가 ‘대화적 합리성’이 있는지 파악한다고 말한다.<sup>37)</sup> 비전문가는 전문가들이 내놓은 주장들을 직접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대화 상황에서 누가 더 우위에 있는지 간접적으로 정당화할 수는 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전문가가 결론을 지지하는 증거를 제시할 때마다 두 번째 전문가가 그 증거를 반박하는데, 그 반대의 상황에서 첫 번째의 전문가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반박을 하지 못하거나 반박을 회피한다. 이럴 때 우리는 두 번째 전문가가 첫 번째 전문가보다 대화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또는 대화적 합리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전문가의 증거를 간접적으로 정당화하는 것이다. 상대방의 반박에 답변한다는 것은 지식의 우월성도 증명하고, 독단적이고 오만하지 않다는 지적 성실성도 보여 준다. 논증의 양 당사자 중 누가 더 버벅거리지 않고 빠르고 매끄럽게 대응하느냐도 판단 기준이 될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소피스트처럼 토론 전문가라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관련 지식에 정통하고 있다는 뜻이다. 우리는 이렇게 전문가들끼리의

---

36) Goldman (2001), p. 94.

37) Anderson (2011), p. 148.

논쟁에서 그 내용은 몰라도 대화의 형식으로 누가 더 우위에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COVID-19 백신 반대자들은 동료 평가 학술 잡지나 공개된 방송에서 주장을 펼치기보다는, 위에서 말했듯이 주로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이용한다. 자신의 주장만 펼치고 예상되는 반론에는 회피하는 증거이다.

여섯째, 과거의 실적도 비전문가가 이용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이다. 앞에서 우리는 의사는 무엇을 잘해야 하고 자동차 수리공은 무엇을 잘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 수리공이 “이렇게 하면 잘 작동할 겁니다.” 라고 말했는데 실제로 잘 작동하면 우리는 그를 전문가로 신뢰한다.<sup>38)</sup> 물론 한두 번의 판단이 아니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정도의 횟수가 있어야 할 것이다. COVID-19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도 과거에 현안에 대해 올바른 발언을 한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우리는 유사한 전염병의 경우 그리고 COVID-19 백신의 경우 국내외 통계를 통해 백신을 접종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의 전염률과 치사율을 비교할 수 있다. 이것은 전문가의 신뢰도를 판단하는 귀납적 증거가 될 것이다. 참고로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을 우려하는 의료인 연합(가칭)’의 한 의사는 과거 비타민 C가 암을 비롯한 각종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한다는 사이비 과학 신봉자이고, 다른 한 의사는 약이 아닌 우리 몸의 자연 치유 능력을 강조하는 이력이 있다. 한편 의료 종사자들의 COVID-19 백신 접종률은 전문가 집단인 의사들이 백신에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추론할 수 있다. 2021년 6월 미국 의학 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 의사의 접종률은 96%이다.<sup>39)</sup> 이 조사는 백신에 대한 찬반 조사가 아니라 접종 여부 조사라는 한계가 있다. 아무리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의견과 반하게 자신이 속한 기관 또는 상사의 유무언의 압력에 의해 접종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접종의 이유로 백신이 새롭고 검증이 안 되었다는 것이나 기저

38) Goldman (2001), p. 107.

39)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021), “Physician COVID-19 Vaccination Study (Final Report)”, <https://www.ama-assn.org/system/files/2021-06/physician-vaccination-study-topline-report.pdf>.

질환이 있다는 것 등을 제시하는 것을 보면 그런 비율은 높지 않을 것으로 추측된다.

## V. 맺음말

나는 COVID-19 백신 접종을 둘러싸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 충돌이 있을 때 그것을 판별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백신 접종을 찬성하는 쪽의 손을 들어 주었다. 백 보 양보해서 이 주제에 관해 전문가들 사이의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럴 때 판단 중지를 하는 것은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며, 이것은 결국 백신 접종을 반대하는 쪽의 편을 드는 것과 같다.<sup>40)</sup> 그러나 나는 그런 상황에서도 COVID-19가 주는 비가역적인 위험성을 고려할 때 '사전 주의의 원칙'에 의해 백신 접종을 찬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sup>41)</sup> COVID-19를 통제하지 않고 내버려 두었을 때 얼마나 해로운지 충분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백신 접종이나 사회적 거리 두기를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의 상대적인 이득과 손해를 평가하기 매우 어렵다. 그러나 리스크의 경우 위양성(리스크가 없으리라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있는 경우)의 잠재적 대가가 위양성(리스크가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없는 경우)의 잠재적 대가보다 훨씬 크다. 전자의 대가는 중증 환자와 사망자의 폭발적 증가이고 후자의 대가는 심각한 경제 침체와 자율성의 침해이다. 둘 중 어느

---

40) Levy & Savulescu (2020), pp. 12~13은 신뢰할만한 과학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정부가 아무 것도 하지 않거나 무언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데, 이것을 '골키퍼의 오류'라고 말한다. 골키퍼는 페널티킥에서 가운데보다 좌우로 다이빙하면 골을 넣어줘도 덜 비난받는다. (가만히 서 있는 것보다 다이빙할 때의 성공률이 높지 않다!) 그들은 페널티킥 이외의 분야에서도 이렇게 적극적 행동을 했을 때보다 소극적 행동을 했을 때 공적인 분노가 더 크기에, 뭐라도 하라는 압력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들도 COVID-19 상황에서 이런 위험을 우려하는 것이지 정부의 적극적 행동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41) 사전 주의의 원칙은 최훈 (2012, 2014)를 보라.

쪽을 선택할 것인가?

지금까지 전문가라고 할 때 역학, 예방 의학, 감염 내과 전문가를 거론했다.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그들이 전문가가 맞는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 두기는 역학만의 문제는 아니다. 어느 단계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해야 하는지는 그들뿐만 아니라 경제학자, 행정가, 그리고 윤리학자들까지 모여 함께 토의해야 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는 사람들의 실생활에 제약하는 정도가 크므로 그들도 관련 분야에서 역시 전문가이다.



## 참고문헌

- 나오미 오레스케스, 에릭 M. 콘웨이 (2012), 『의혹을 팝니다』, 미지북스.
- 최훈 (2012), 「광우병과 관련된 리스크 분석과 논리적 대응」, 『환경철학』, 14: 119-143.
- 최훈 (2014), 「공학 윤리 교육에서 사전 주의의 원칙의 적용」, 『인문과학연구』, 42: 311-333.
- 최훈 (2015), 『변호사 논증법』, 서울: 웅진지식하우스.
- 최훈 (2016), 「깊은 의견의 차이는 해소 가능한가?」, 『수사학』, 25: 177-205.
- 최훈 (2021), 『읽기만 하면 내 것이 되는 1페이지 철학 365』, 서울: 비에이블.
- Almassi, Ben (2012), “Climate Change, Epistemic Trust, and Expert Trustworthiness”, *Ethics & the Environment*, 17(2): 29-49.
- Anderson, Elizabeth S. (2011), “Democracy, Public Policy, and Lay Assessment of Scientific Testimony”, *Episteme*, 8(2): 144-164.
- Baghramian, Maria and Silvia Panizza (forthcoming), *Scepticism and the Value of Distrust*, *Inquiry: An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Philosophy*.
- Baier, Annette, (1986). “Trust and Antitrust”, *Ethics*, 96(2): 231-260.
- Bennett, Matthew (2020), “Should I Do as I'm Told? Trust, Experts, and COVID-19”, *Kennedy Institute of Ethics Journal*, 30(3-4): 243-263.
- Cassam, Quassim (2021), “Doubt as a Political Virtue”, *Midwest Studies in Philosophy*, 45: 371-391.
- Croce, Michel (2018), “On What it Takes to be an Expert”, *The Philosophical Quarterly*, 69(274): 121.
- Fogelin, Robert J. (1985), “The Logic of Deep Disagreements”, *Informal Logic*, 7(1): 1-8.
- Fricker, Elizabeth (2006), *Testimony and Epistemic Autonomy*, in Jennifer Lackey & Ernest Sosa (eds.), *The Epistemology of Testimony*: Oxford University Press.
- Goldman, Alvin I. (2001), “Experts: Which Ones Should You Trust?”, *Philosophy and Phenomenological Research*, 63(1), 85-111.
- Goldman, Alvin I. (2018), “Expertise”, *Topoi*, 37: 310.
- Hardwig, John (1985), “Epistemic Dependence”, *Journal of Philosophy*, 82(7): 335-49.

Hardwig, John (1991), “The Role of Trust in Knowledge”, *Journal of Philosophy*, 88(12): 693-708.

Levy, Neil and Julian Savulescu (2020), “Epistemic Responsibility in the Face of a Pandemic”, *Journal of Law and the Biosciences*, 7(1): 1-17.

Matheson, Jonathan (2015), *The Epistemic Significance of Disagreement*, Palgrav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021), “Physician COVID-19 Vaccination Study (Final Report)”, <https://www.ama-assn.org/system/files/2021-06/physician-vaccination-study-topline-report.pdf>. (검색일: 2021.01.20.)

Watson, Jamie Carlin (2018), “Expertise: What is an Expert?”, <https://1000wordphilosophy.com/2018/10/25/expertise/>. (검색일: 2021.01.20.)

**【Abstract】**

Epistemic Disagreement and Expert Trust in Pandemic Era

Choi, Hoon

With the pandemic continuing around the world since January 2020, there has been constant controversy over whether the entire nation should be vaccinated or how intense social distancing should be. Many view that it is reasonable to rely on experts to make responsible decisions on this controversy. And they don't think that relying on a small number of experts to make policy decisions will undermine democratic legitimacy. Expert trust is premised on judging that a small number of policy decisions are compatible with democracy. Nonexperts acknowledge the authority of experts and trust their expertise in the field, so it can be said that decisions based on them are reliable and guarantee democratic legitimacy. This paper deals with how epistemic trust in experts occurs and is justified in a pandemic situation. This paper raises the following questions. Why are experts trusted? Is trust in experts really reasonable? And which side should I trust when there is disagreement among experts? What kind of experts should non-experts trust when experts disagree?

**【Keywords】** Pademic, COVID-19, expert, expertise, epistemic trust

논문 투고일: 2022. 03. 19

심사 완료일: 2022. 04. 21

게재 확정일: 2022. 04. 21

